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 기도문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선한 바람을 보내시어 피곤한 몸과 마음에 위로를 주시며, 사랑하는 가족과 한 자리에 모여 기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이 한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영적인 결단과 헌신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더욱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 제례(祭禮)의 의의

기독교는 효(孝)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어버이께 효성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축복의 근거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레19:3, 출20:12, 엡6:1-3). 육신의 어버이께 효도하지 않는 자녀는 결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정성 된 마음으로 먼저 가신 어버이와 조상의 신앙과 성품과 덕을 기리며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실천할 기독교적 예배 규범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가족 식구 둘에게는 은혜를 끼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예배순서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301장	다	같	이
기 도		가	족	중
성경봉독	 시편 128:1-6	인	도	자
말 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인	도	자
찬 송	 559장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본문말씀 시편 128:1-6

-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 2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 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 5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 6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말 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서 복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첫째는 산업의 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업이 번성하는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2절).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한 결과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이 늦도록 일하며 수고하는데도 그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다면 참으로 안타까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할 때 그 수고와 노력의 대가가 축복으로 열매 맺을 것입니다.

둘째는 가정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정은 복을 받게 됩니다.
현숙한 아내와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녀가 있는 가정은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3절). 가정에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 같은 현숙한 아내가 집안의 일을 돌보며 식탁에는 잘 자라고 있는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이 함께 둘러 앉아 있는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세상의 어떤 재력가나 권세가도 가정의 행복을 물질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가정의 행복을 책임지십니다.

셋째는 영적인 복입니다.

본문 5절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 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주시는 복 곧 신앙의 복,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 유산이 자녀 대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